



가장 안전한 사업소를 추구하는

한전기공(주)보령사업소

요즘 낮은 한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햇빛이 따가워 팔소매를 절로 걷어 올리게 한다.

많은 이들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에 야외로 많이 들떠난다. 그러나 휴일, 휴가를 반납하고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는 한전기공(주)보령사업소(이왕수 소장)는 여름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태양보다 더 뜨거울 것 같은 발전기와 느낌이 그리 좋지 않을 습기 많은 여름 기온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실정이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 “고품질, 무사고, 무재해”, “좋은 일터 조성”을 통해 『제일 강한 사업소』가 되기 위해 정성과 정열을 다하는 이곳 사업소는 아랑곳하지 않

는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한 한전기공(주)보령사업소는 480만 KW의 국내 최대용량의 발전소로 국내 발전설비용량의 11%를 점유하고 있다.

유연탄 발전소와 복합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발전소인 이곳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에는 발전설비의 유지, 보수, 정비를 담당하는 한전기공(주)가 있기에 가능하지 않나 여겨진다.

공기업 최초로 2001년 7월에 국가 품질경쟁력우수 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한 한전기공(주)는





2001년도 국가 품질경영상을 수상하였고, 최근에는 무재해 5배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는 무재해가 최우수 품질경영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2002년 목표를 무재해 10배 목표 달성을 위한 교두보 마련과 소장의 경영방침 중 하나인 인적·물적 실수 Zero화를 설정할 만큼 안전을 중요시 여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안전 후품질의 원칙』을 내세운다.

울산, 서천발전소 등 여러 곳에서 무재해의 금지탑을 세운 이왕수 소장은 『우리 직장가족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이 곳 직장에서 보냅니다.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가정과 같이 안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소장인 나의 의무이지요』라고 말한다. 이는 이왕수 소장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동기이기도 하다.

한전기공(주)보령사업소는 24시간 운영되는 발전설비에서 뿜어 나오는 고열, 분진, 소음과 고소작업에서의 추락 위험이 항시 잠재되어 있음에도 무재해로 이끌어 가는 데는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이 있다.

자율안전을 정착시킨 『안전 주번제』

95년 5월부터 실시해온 『안전 주번제』는 각 발전소의 과·부장을 일주일 씩 안전주번으로 임명하여 현장 안전순찰과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작업장의 불안정한 상태 및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시정토록 하고, 순찰 중 우수하게 안전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우수 안전인으로 추천하여 안전의 날 행사시 “이달의 우수 안전인”으로 선포하고, 포상을 한다. 자율 안전활동 분위기 정착을 위한 것으로, 큰 효과를 거둔 제도이다.

윗물이 안전 제일 되어야 아랫물도 안전

전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위 직급 직원들이 “안전 제일 마인드”가 바로 서야 부하 직원이 따라 오를 100% 활용함으로써 자율 안전을 정착시켰다.

지금도 지속적인 “안전 제일 마인드 고취”를 위해 관리감독자 및 전 직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안전협회의 “SIOP기법 실무연수” 등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자체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2000년에 80여명의 직원이 각종 교육을 이수하였고, 금년도에는 100여명의 직원을 교육에 참가시킬 계획



획을가지고있다.

이 밖에 안전마인드 고취를 위해 안전도서 및 안전교육자료 배포, 작업장에 가족사진 게시로 작업전 안전의식을 높이고있다.


안전경영제도 정착

전사적으로 안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위하여 보령사업소 자체의 안전경영평가기준을 수립·시행하고있다.

이 기준은 KSA 등 안전기관의 안전인증평가 항목을 발전소에 적합한 항목으로 수정·보완하여 총 17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을 매년 본사 또는 자체 점검·평가하여 2003년도에는 『초일류 사업장』으로 받돋움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있다.

국내 최대용량의 발전소인 보령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를 정비하는 한전기공(주)보령사업소는 국민생활과 산업발전



의 원동력인 안정적인 전력생산에 이바지 함은 물론 『회사에서 고생하는 직원이 다치면 가슴이 찢어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를 안다면 안전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왕수 소장의 말에서와 같이 철저한 자율안전으로 2003년의 목표인 초일류 사업소로 우뚝 서길 기원한다. 

〈취재, 촬영 : 최종덕 기자〉